

Diversitas

Diversitas

Libertas

Justitia

Veritas

et

Diversitas

07

있는 그대로 살아도
괜찮은 세상을 꿈꾸며
다양성에 대한 3가지 단상

민지영 라디오 PD

35

왜 탄탄대로에는
다양성이 없을까?
탄탄대로를 깨트려줄 우리 안의 다양성에 대하여

양희연 삼성 SDS CX컨설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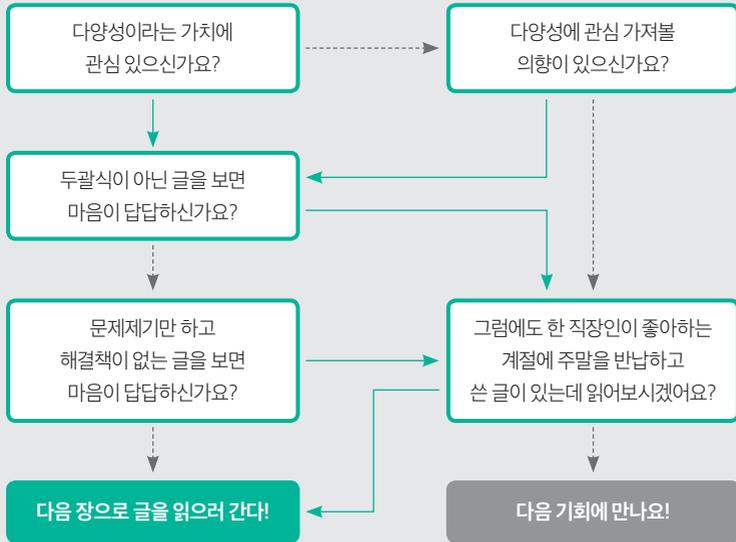
있는 그대로 살아도
괜찮은 세상을 꿈꾸며

다양성에 대한
3가지 단상

민지영

라디오 PD

→ 네 -----> 아니오



※ 이 글은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장은 개별적인 이야기로 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 1장: 빨리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해야 하는 시간의 압박과 다양성의 관계
- 2장: 조직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중 받지 못하는 이유
- 3장: 다양성 증진을 위해 개인의 관심이 필요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의 중요성

■ 내 나이가 어때서?

나는 일상에서 벗어난 경험이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킨다고 믿는다. 내가 이 글을 써본 경험만 해도 그렇다. 딱 열 장 짜리 원고를 쓰는 경험이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 글쓰기의 고통을 진하게 체험했고, 글 쓰는 사람들을 더 존경하게 되었다. 라디오 PD로 일하는 나에게는 매일 새로운 원고를 들고 오는 같은 팀 작가가 무척 빛나 보이는 경험이기도 했다. 또한 직장의 일과는 다르게 ‘오늘 업무 다 끝났으니 퇴근!’의 개념도 없고, 쓰긴 썼는데 잘 쓴 건지도 모르겠는 모호하고도 심오한 글쓰기라는 일을 업으로 하는 모든 분들의 어려움에 더 진실하게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듯 어떤 일을 한 번이라도 직접 겪거나 가까이서 목격하면 그 분야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가깝고 생생하게 들린다. 왜 그들이 그런 애로 사항을 토로하고 그런 요구를 하는지 더 잘 와 닿는다. 이제 이 일련의 과정을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겪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 모두가 매일 하는 일과는 색다른 경험을 하나씩 하는 것이다. 각자에게는 하나의 경험뿐일지라도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경험의 접점을 공유하는 집단이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총합 역시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 사람이 겪은 새로운 경험은 그 사람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연대와 지지를 이끌어내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나의 생각은 “그러니 우리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먹고 사는 일과 관계없는 쓸모없는 경험을 많이 합시다!”라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자신만의 완고한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판짓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평생을 살아갈 가치관과 습관을 형성하는 삶의 초기에는 그 효과와 중요성이 더욱 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귀중한 시기를 다양한 경험으로 채워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왜 그럴까? 지금부터는 그 이유를 ‘한국의 나이 문화’와 연결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나이와 관련된 한국인의 언어 습관은 여러모로 흥미롭다. 가령 스물다섯은 더할 나위 없이 파릇파릇하고 젊은 나이이다. 그런데 스물다섯이 된 친구들이 생일날 SNS에 올린 글을 보면 대개 이런 내용이다. “나도 벌써 반오십...” “얼른 취업해서 나잇값 해야지.” 다른 예를 보자. 몇 주 전에 40대 상사가 새로 자른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무스를 바르고 왔으며 “내가 이 나이 먹고 머리에 무스나 바르고 다닌다.”며 멋쩍어하셨다. 나이 먹고 무스 좀 바르면 어떤가 싶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가 앓나보다. 특정 나이가 되면

나잇값을 하기 위해 완수해야 하는 일(취업)이 있고, 또 어떤 나이가 되면 나잇값을 하기 위해 해서는 안 되는 일(무스 바르기)이 있다. 이렇게 나이마다 해야 하는/해서는 안 되는 일이 정해져 있고, 그 정해진 궤도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는 압박을 느끼는 것은 더 어릴 때부터 시작된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에 갔다. 대학에 가니 나와 같은 학생을 현역이라고 부른다. 1년 더 공부하고 대학에 온 학생은 재수생, 2년 더 공부하고 온 학생은 3수생이라고 부른다. 드물지만 4수생, 5수생도 있다. 미국·영국 등 서양 문화권에서는 제 나이보다 늦게 대학에 간 사람들을 ‘늦게 대학 온 사람’ 정도로 통칭하는 반면, 우리는 입시 준비 기간에 따라 각기 다른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얼마나 빨리 과업을 성취했는지를 구별해낸다. 입시에 한 번 실패할 때마다 세상이 나를 부르는 명칭이 달라진다. 이번엔 꼭 붙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밀려온다. 이 부담감은 대학 합격에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을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낸다. 합격과 상관없는 많은 일들이 대학 입학 후로 미뤄진다.

이렇게 밀리고 미뤄진 일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가 고등학생 시절 선생님이나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떠올려보자. “연애는 대학 가서 마음껏 하렴. 멋도 대학 가면 원 없이 부릴 수 있다.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따를 테니 친구 사귀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좋은 대학 가면 네

목소리에 힘이 생기니까 그 때 사회에 좋은 일 많이 하면 된다. 지금은 그런 것들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지 않나. 공부에 끝이 어딴니?” 이 조언을 착실히 따르는 학생은 연애, 취미 활동, 근로 활동, 정치 활동 및 기타 모든 사회 활동을 대학 합격 이후로 유예시킨다. 이 유예는 연쇄적으로 학생들이 낮은 타인과 만나고 익숙지 않은 환경에서 적응하며 자아와 사회에 대해 고민해볼 기회 역시 유예시킨다.

마침내 봉인이 해제되고 대학생이 되었다. 입시의 관문을 통과한 학생들은 이제 모든 걸 할 수 있고, 모든 걸 해도 되는 환상의 세계에서 살게 될까? 나는 다음 두 가지의 이유로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 첫째,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시간을 원하는 대로 계획하고 사용해 본 적 없는 사람은 갑자기 많아진 자유 시간이 당황스럽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뭘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정년퇴직 후 우울증을 앓는 중장년과 비슷한 심리 상태를 경험한다. 물론 고등학생 때보다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졌다. 그러나 자아 탐구나 세계와 자신의 관계 정립 등 본질에 가까운 문제일수록 대학에 들어가고 성인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둘째, 곧 다음 과업인 취업을 준비해야 한다. 한 두 해 자유의 몸이 된 걸기 빼하고 또 당황하다보면 금세 취준생이 된 자신을 발견한다. 성공적인 취업

의 조건은 성공적인 입시의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좋은 곳’에 ‘최대한 빨리’ 합격하는 것이다. 공기업 등 일부 기관에서 나이를 명시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지만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 어린 나이 자체가 스펙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은 견고하다. 대학생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직접 모집한 235명의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취업 시장에서 같은 조건이라면 나이가 어린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87.7%가 “그렇다”고 답했다.

입시 때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빨리 과업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업 성취에 기여할 수 없는 시간의 소비는 낭비로 인식된다. 변호사가 되려고 로스쿨을 준비하던 학생이 6개월 간 휴학하고 로스쿨 입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컴퓨터 그래픽, 천문학, 러시아어를 배우겠다거나 뉴질랜드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고 상상해보자. 그 선언을 들은 누군가가 “잘 생각했구나! 그 경험을 통해서 네가 여지껏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끼고,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만날 거야. 미래에 어떤 의뢰인을 변호하든 그 의뢰인을 더 잘 이해하는 경험이 될 테니 한 번 해봐!”라고 말해주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그려지는가? “그런 건 일단 로스쿨 합격해서 변호사 되고 나서 취미로 하면 되지. 그런 일로 1년 버리고 같이 준비하던 친구들이 선배가 되면 좋겠니? 한 해 한 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도 알잖니.”가 훨씬 익숙하게 들리지 않는가? ‘일단’의 마법은 당장 눈

앞의 시급한 과제 외에 부차적인 일들을 효과적으로 지워낸다.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그 사람의 일을 직접 경험하거나 가까운 곳에서 목격할 때 한층 더 진실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단’이 지워낸 것은 개인적인 경험만이 아니다.

이 나이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가? 20대 초반에 대학을 가고, 20대 후반에 취업을 해서, 30대에는 안정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루저가 되지 않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은가? 늘 마감일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순간마다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보면서 살 수 있는 사회에서. 풍부한 경험에서 비롯된 다른 분야와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충만한 사회에서. 그러니 외치자. 내가 나잇값도 못하고 이래도 되나, 걱정될 때마다. 누군가 이 나이 먹고 이래도 되나, 걱정할 때마다. “내(네) 나이가 어때서?”

말변비를 앓는 사람들

직장인이 되기 전에는 회의가 멋진 시간이 될 줄 알았다.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밝히고, 자신 있게 상대를 설득하고, 합의를 통해 사안을 결정해가는 대회의장. 그러나 내가 보고 들은 현실은 반대에 가까웠다. 항상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말조심을 해야 하고, 상대를 설득할 여지나 의지는 없으며, 사안은 대부분 일부 권력자의 뜻대로 결정되었다. 하고 싶은 말이 턱 끝까지 차올라도 꺾꺾 삼켜내야 하는 ‘고구마’ 회의에 ‘사이다’는 애초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로는 회의는 그저 빨리 끝나는 게 최선인 일이 되었다. 회의실 밖의 대화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밖으로 내뱉지 못한 말들은 속에서 쌓여가고 ‘할말하않¹⁾’이 일상화된 사람들은 말변비를 앓게 되었다. 나 역시 말변비를 앓으면서 처음에는 내 소심한 성격을 탓했다. 그러나 주변에 나 말고

1)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를 줄여 이르는 말

도 말변비 환자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는 이 문제를 좀 더 큰 틀에서 비
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반추의 시간을 공유하고자 이번 장에서는 우
리가 조직 내에서 당당하게 할 말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아래 등장하는 대화 상황은 내가 직접 겪었거나 친구들에게 전해들은 것이다.

1) 수직적인 문화와 권력의 불평등

2012년 3월

“선생님. 왜 교복 자켓 위에 검정 패딩만 입어야 해요? 저는 올해 학생회 규칙이 나오기
전에 이미 주황 패딩을 사버렸는데요.”

“학생이 단정하게 다녀야지. 정신 사납게 주황 패딩이 뭐야? 내일부터는 가족들 거라
도 입고와.”

“패딩이 만원, 이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큰 돈 주고 사주시는 건데 그럼 이거
는 버려요?”

“너 이 자식 선생님 말에 따박따박 말대꾸나 하고 말이야. 이제 머리 다 컸다 이거지?”

“그게 아니라 진짜 검정 패딩도 없고, 이거 새로 산 옷이란 말이에요.”

“너 선생님이 반대하면 대학교 원서 쓸 때 추천서 받을 수 있을 거 같아? 네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이런 기본적인 예의가 안 갖춰 있으면 추천서 못 써줘.”

“ ... ”

2021년 1월

“오늘 내가 있다고 눈치 보지 말고, 가감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엇보다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한 홍보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하 생략)

“김주임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의견이 현실성이 떨어져. 패기가 있는 건 좋지만 회사 생활에서는 현실 감각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한데 말이지.”

“...”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탐색한다. 대화를 나눌 기회가 오면 말 한 마디 한 마디 탐색한 정보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호감을 사기 위해 그 사람이 거슬려 할 말은 거르고, 관심 보일 만한 이야기를 던지며 자신을 어필한다.

잘 보여야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내 추천서, 내 성과급, 내 근무 평가 및 업무분장 권한을 손에 쥐고 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탐색해야 한다. 보통 대화를 나눌 기회는 원치 않아도 온다. 역시 탐색한 정보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 마디 한 마디 신경 쓴다. 내가 맞는 말을 했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나의 말이, 더 중요하게는 내 발화의 태도와 방식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었는지가 더 중요하다.

발화자들 사이의 권력 차이가 심한 수직적인 조직일수록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다양한 관점의 수용이 어려워진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살펴보자. 첫째, 어차피 중요한 일의 결정권은 권력자에게 있다.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와 상관없이, 내 발언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일은 결국 윗분들 뜻대로 진행된다.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고 나면 굳이 입 아프게 이야기하며 기운 빼기 싫어진다. 정해진 답이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하여 그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회의를 빨리 끝내는 것이 어차피 같은 결과를 얻을 거라면 시간과 정신적 에너지를 모두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둘째로 내가 권력자의 입맛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여 그와 관계가 악화될 경우, 나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첫번째 이유에서 살펴봤듯이 수직적인 조직에서는 업무 평가와 보상, 인사권을 포함한 중요한 결정권이 모두 상부에 있다. 자유롭게 이야기하러서 정말 자유롭게 이야기했다가 윗사람에게 잘못 찍히면 회사 생활이 힘들어진다. 단지 감정적으로 견디기 힘들어진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로 내 근무 평정이 나빠지고, 성과급이 낮아지며, 모두가 피하고 싶어 하는 일을 내가 맡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역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나는 상사의 성과급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상사의 역할을 결정할 때 내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 평가와 보상의 권한이 상부에 쏠려 있는 한 ‘눈치

보기'와 '비위 맞추기'는 하급자들에게 살아남기 위한 필요악이다. 하급자는 상사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거나, 말을 최대한 아끼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는' 전략을 선택한다. 회사에 다니고 유독 말수가 적어진 친구들이 있다. 묻지 않아도 이유를 알 것 같다.

남들 다 하는데 너만 안 한다고?

2019년 10월

"A팀은 단결이 너무 안 돼. 점심도 다들 따로 먹고 말이야. 앞으로 팀끼리 점심 같이 먹지? 나도 종종 조인할테니까."

"네, 대표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넵!"

"네..! (마음의 소리: 나는 혼자 후딱 먹고 내 시간 보내는 게 좋은데...)"

최근 삶의 양식이 변화하며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조성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조직 안에만 들어오면 '이곳은 바깥 세상과는 시간이 괴리되는 곳인가?'하는 의문이 들만큼 여전히 모난 돌이 정을 맞는다. 회식에 빠지면 사회 생활 못 하고 분위기를 흐리는 인간이나 개인 시간만 중

시하는 이기적인 인간이 된다. 등산, 축구 등 분명 회사 일이 아닌 일인데도 단체 활동에 빠지면 내가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와는 상관없이 회사에 관심 없는 사람이 된다. 다들 “네.”라고 할 때 혼자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은 관중²⁾이 된다. 수직적인 조직일수록 상부가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고, 한국에서는 연차가 높을수록 상급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한 희생 강요와 각자 노선을 타는 사람에 대한 배격은 여전히 많은 조직에서 현재 진행형이다.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다 같이 문화’ 역시 미래에도 계속될 것 같다. 애석하다.

2) ‘관심 종자’를 줄여 이르는 말로 주로 지나치게 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2)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회 - 평판의 감옥

2020년 6월

“무슨 고등학교도 아니고. 초과근무 시간을 표로 만들어서 게시판에 걸어 놓는 게 말이 돼?”

“내 말이. 근데 부장들이 대표한테 잘 보이려고 죽어라 야근하는데 아랫사람들이 별 수 있어? 눈치 없는 사람 되기 싫으면 해야지 뭐.”

“어떻게 계속 그렇게 일하려고? 이걸 아닌 거 같다고 말 좀 해봐. 어디 신고를 하든가.”

“우리는 업계가 좁아서 그렇게 따지는 이미지로 찍히면 끝이야. 나는 가진 기술이 이인데... 잘못 소문 나면 이직은 꿈도 못 꿬.”

좁은 사회일수록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언행을 조심하게 된다. “이 바닥이 얼마나 좁은지 알아?”라는 말은 “너 혼자 그렇게 튀면 네가 완전 제멋대로인 인간이라고 소문내주겠어.”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 말 한마디로 손쉽게 누군가의 순응을 이끌어낸다. 좁은 사회는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라는 속담을 현실에서 증명하듯 개인에 대한 평판과 소문을 재빠르게 실어 나른다. 내 언행이 언제든 감시되고 공유될 수 있다는 긴장감과 피로감은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편하게 드러내며 고유한 방식대로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업계의 관습에 복종하지 않는 개성 있는 인간에 대한 낙인은

그 사람의 현재 지위뿐만 아니라 미래의 입지까지 앗아가 버린다. 비슷한 이유로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목격해도 신고할 엄두를 못 낸다. 그렇게 평판의 감옥 안은 늘 소문으로 웅성대면서도 구조 자체에 대한 비판은 침묵시키고, 그만의 견고함을 지켜낸다.

이러한 행태를 변화시키려는 구성원 모두의 각고의 노력 없이는 이목의 관옵티콘(Panoticon)에서 개인이 질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그렇다더라.” 개인에 대한 행실과 평가를 실어 나르고, 2차 해석을 덧붙이며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단정하는 일을 멈추자. 전해진 말들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을 뿐더러, 그렇게 입에서 입으로 날라지며 불시에 평가받는 개인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3) 어릴 적 경험과 배움은 평생을 간다는데

2009년 10월

“이건 네 생각이잖아. 각자 자기 생각을 쓰면 선생님이 점수를 어떻게 공평하게 매기니?”

“틀린 건 아니잖아요. 이 내용을 배웠으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그래도 배운 대로 써야지. 다들 자기 생각을 쓰고 와서 그게 맞다고 우기면 점수는 어떻게 주니?”

“ ... ”

이번엔 과거로 돌아가 원인을 짚어보자. 학창 시절 우리는 자기 생각을 잘 말하도록 배우고 이를 실천하며 살았을까? 그렇지 않다. 왜?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자기 생각 없이도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고 좋은 대학에도 갈 수 있다. 오히려 자기 생각이 많아질수록 정해진 답을 고르고 써내는 시험에 서는 불리하다. 사고가 아니라 암기를 요하는 시험을 공부하는 것은 “이건 왜 그럴까?”와 “아, 모르겠다. 그냥 외우자.”의 반복이다.

도의적으로도 주어진 것과 해야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반박하지 않아야 ‘어른들 말씀 잘 듣는 착하고 바른 학생’이 될 수 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어른 말씀에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는 것은 버르장 머리를 상실한 행위로 비취질 수 있다. 내 생각이랄 것을 갖거나 주장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지 않는 편이 낫다. 이렇게 살아온 자들이 대학에, 사회에 던져진다. “이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해보길 바랍니다.” “민대리. 자네 생각은 어떤가?”

내 의견을 일목요연하게 전달하려면 무슨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하나? 남들과 생각이 다를 때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내 의견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전에 내 의견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 정립 되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에 우리의 경험치는 턱없이 모자라다. 이미 던져진 사람들이야 아쉬운 대로 부딪히면서 답을 터득해야겠지만, 더 이상 아쉬운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학교가 한

시 빨리 풍성한 대화와 토론, 다양한 사고방식을 길러내는 곳으로 탈바꿈하
기를 바란다.

■ 관심의 낄낄빠빠³⁾가 시급합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내 관심이 필요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누구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살아가도 괜찮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다.

나는 대학교 3학년 때 교환학생을 다녀왔다. “어딜 가든 의미가 있겠지.” 여행 준비도 목적지만 고르면 반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나는살아보고 싶은 도시에 있는 학교 중에 공향이 가까운 곳을 몇 개 골라 지원했다. 그 중 Agnes Scott College에 합격했는데, 최종 합격할 때까지 그 학교가 여대라는 사실을 몰랐다. 미국에도 여대가 있구나, 신기해하며 학교에 내 정보를 보내는데 대강 고른 이 학교가 참 특별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Gender Pronouns(젠더 호칭)를 묻는 것이다. 남/여로 구분되는 성별(Sex)이 아닌 젠

3)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의 줄임말

더 호칭을 고르라는 곳은 처음이었다. 이 학교는 여대인데 왜 젠더를 고르라는 걸까? 한국 여대에도 남자 교환학생이 있다던데 비슷한 경우 때문일까? 여러 질문을 던지며 <보기>를 클릭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She/He 외에도 보기가 6개나 더 있다. They 이하로는 처음 보는 대명사였다. 검색을 하고 나서야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다.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젠더 개념이 있다는 것에 놀랐고, 학교에서 학생의 성별이 아닌 젠더를 묻고 있다는 사실에 더 놀랐다.

젠더를 묻는 것은 학생 등록 절차에 그치지 않았다. 개강 전에 학교 생활에 대해 알려주는 오리엔테이션 세션에 참여하고 있었다. 여느 오리엔테이션 처럼 모둠을 지어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다들 자신을 어떤 젠더 호

Profile : Required Information

There are some profile fields required by this site that you have not filled out. Please complete the required sections in the form below and click on the 'Update' button at the bottom of the page.

Please complete the required data sections of this form and click on the submit button at the bottom of the page in order to access this site.

Required Information

Gender Pronouns**

Choose One:

- 1 she/her/hers
- 2 he/him/his
- 3 they/them/theirs
- 4 ze/hir/hirs
- 5 ze/zir/zirs
- 6 ne/nem/nens
- 7 ey/em/eirs
- 8 not applicable

Additional Information

City and Country of Birth

Country of Citizenship

칭으로 불러주기를 원하는 지도 함께 소개했다. 살면서 셀 수 없이 많이 자기 소개를 해봤지만 내 젠더를 소개해본 적은 없었다. 내가 여자라는 것을 소개하라는 걸까? 이런 걸 소개하라는 건 처음인데? 혼란스러웠지만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하나 보고 “나는 한국에서 온 지영이야. 내가 선호하는 젠더 호칭은 she야.” 소개했다.

몇 주 지내고 나니 왜 젠더 호칭을 소개하는지 알게 되었다. ‘겉보기에’ 여자처럼 보이는 친구도 자신이 받아들이는 젠더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글로만 접했던 ‘sex’와 ‘gender’의 차이를 살아 움직이는 개개인의 삶을 통해 익히게 되었다.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스스로를 남자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자신을 He라고 소개했다. 여성도, 남성도 아닌 중성적인 젠더 정체성을 지닌 친구는 스스로를 They라고 소개했다. 새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만큼 그 친구가 선호하는 젠더 호칭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되었다. 처음 사귀 친구와 이름을 교환하면 다음 번 만났을 때 “저기”나 “너” 대신에 그 친구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처럼, 소개받은 젠더 호칭을 잘 기억하고 맞게 불러줘야 실례하지 않을 수 있다. 가령 A라는 친구가 자신을 They라고 소개하면, B라는 친구에게 “A도 오늘 점심 먹으러 오니?”라고 물을 때 “Is she coming for lunch today?”라고 물으면 안 된다. “Is they coming for lunch today?”라고 물어야 한다. They는 복수대명사라고 달

달 외운 나는 한 명의 사람도 they로 칭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곳에서 지내다 보니 스스로를 They라고 여기는 친구를 They라고 칭하는 것은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스스로없이 공개하고, 이를 아무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는 낯설었다. 낯선 동시에 놀라웠다. 또 놀라울 만큼 아름다웠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어 그래? 그렇구나.” 아무렇지 않게 소개하고,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젠더 이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나는 미안마에서 온 난민이야.” “나는 어릴 때 동생이랑 같이 입양되어 미국으로 왔어.” “어릴 때는 엄마가 나를 혼자 키우셨고 지금은 엄마랑 엄마 남자친구와 살아.” “나는 엄마만 두 분 있어.” “내 남자친구는 대학 안 다녀. 지금은 건설 현장에서 일해.” 그곳의 친구들은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드러내는 데 두려움이 없었다. 두려움 없이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듣는 사람들은, 그저 듣는다. 그걸로 끝이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친구를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 진다거나, 그럴 경우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떠냐고 구하지도 않은 조언을 한다거나, 네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면 이런 점이 어려웠겠다며 속단하지 않는다. “어 그래? 그렇구나.”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의 질량만큼만 받아

들인다.

이 지점은 굉장히 사소한 차이처럼 보이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나, 나의 배경, 내가 겪은 일, 내 주변 환경을 대수롭지 않게 들어 주고 받아들이는 곳에서는 스스로를 마음 편히 털어놓을 수 있다. 내가 어릴 적 왕따를 당했다고 밝히면 나를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것을 말하면 나를 결핍 있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먼저 고민하며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된다. 다양한 모양으로 빚어진 삶들이 지레짐작과 편견을 피해 숨지 않아도 되고 찌그러지지 않아도 된다. 편안하다. 나 자신을 감추거나 불필요한 변호를 하지 않아도 되어 편안하다.

나와 내 주변의 삶은 어땠는지 생각해보았다.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두고 귀농을 하셨다. 농사가 자리 잡기 전까지 집이 어려웠다. 나는 가난을 숨기고 싶었다. 엔진이 낡아 요란한 소리를 내던 아버지의 오래된 트럭이 나를 아는 체할까 봐 길을 걷는 게 두려웠다. 여름에는 더운 데서, 겨울에는 추운 데서 일하는 아버지의 직업을 자랑스러워하는 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학교에서 기초 설문을 위해 부모님의 학력을 제출하라고 할 때는 지옥 같았다. 어느 해엔 선생님께서 손 쉽게 통계를 내고 싶으셨는지 설문지를 제출하는 대신 질문마다 해당 항목에 손을 들라고 하셨다. 그

럴 때는 모르는 척 거짓말을 하고 싶었다.

한 친구가 어릴 때 입양됐다는 소문이 났다. 그 친구가 최근 방황하는 거 같다며 자기 입양된 사실을 알아버린 거 아니냐는 추측도 함께 들렸다. 중학교 때 한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친구의 어머니는 아버지 없는 자식으로 큰 거 티 내면 안 된다며 엄해지셨고, 친구도 아버지 없이 자란 걸 티 내지 않기 위해 더 예의 바른 인간이 되고자 노력했다. 스물 한 살에 한 친구가 혼전임신을 했다. 친구는 SNS를 탈퇴하고, 한동안 어떤 친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았다. 동물권과 환경 이슈에 관심이 많은 한 친구가 최근 채식을 시작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단체 생활 못하는 까다로운 사원이 될까봐 절친한 동료들을 제외하고는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어 그래? 그렇구나.”로 끝나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한다. 가난은 죄가 아니다. 입양된 것도 죄가 아니다. 한부모 아래서 자란 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일찍 아이를 낳은 것도 말이다. 내가 고기를 먹지 않기로 선택한 것도, 그래서 회식에서 고기를 안 먹겠다는 것도 죄가 아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났지만 스스로를 남자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여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그러나 ‘다수’가 ‘정상’이라고 여기는 것에서 벗어난 삶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죄가 아닌 것도 죄가 된다. 걸리지 않도록 숨겨야 하고, 혹시라도 들통이 나면 최대한 자기 변호를 해야 한다. 나는 가난하지만 게

으르지 않아요. 구질구질하게 공짜나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입양 되었지만 결핍감에 시달리는 자존감 낮은 인간은 아니에요. 나는 일찍 아이를 낳았지만 생각 없이 인생 막 사는 사람 아니에요. 나는 채식을 하지만 까다롭거나 예민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왜 서로가 서로에게 변호의 의무를 지우며 살아야 하는가? 왜 어떤 세상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을 우리는 구태여 해야 하는가?

남이야 어떻게 살든지, 관심을 끄자.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하여 입방아 찧고 알가알부해야 할 것들은 따로 있다. 다양한 모양의 삶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내 관심이 필요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내 관심이 필요하겠는데?”와 “그래서 그게 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를 제 때 말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편견과 낙인의 형식으로 소모된 공동체적 관심이 정작 그를 요하는 곳에는 닿지 못하고 있다. 누가 세웠는지 모르는 정상의 기준에서 벗어난 개인을 동정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데는 열정적인 사람들은 많은 반면 구조적으로 다양한 개인을 존중하고 포용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

스스로를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 3의 성으로 받아들이는 친구가 있다. 본인이 스스로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온전히 그의 인생 영역이고, 그 사실

로 인해 누군가 해를 입는 것도 아니다. 그 사실로 인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없다. 고로 나는 그의 선택 자체에 관심을 쏟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친구가 학교에서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나의 관심이 필요한 문제다. “내가 다니는 학교의 시설이 어떤 곳이길 바라는가?”로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내가 낸 등록금이 어떤 가치를 위해 쓰이길 바라는가?”라는 질문과 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학생 식당이 채식주의자에게 충분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는지, 캠퍼스 공간에서 휠체어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지에 내 관심이 필요한 이유와 같은 맥락이다. 나는 성 중립 화장실이 필요 없고, 채식주의자도 아니고, 두 다리 멀쩡하다고 해도 말이다. 분명 존재하는 그들을 학교가 어떻게 대하길 바라는가? 내가 다니는 학교가 모두에게 따뜻한 곳이길 바라는가? 이 질문은 모두가 던져야 하는 질문이고, 고로 나와도 무관하지 않다. 혹여, 우연히, 아주 드물게, 지금 이 순간의 나는 주어진 모든 조건에서 다수자라고 할지라도, 나 역시 언제 어떤 계기로 소수자가 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더더욱.

이렇게 구조적인 관점에서 모두의 권리가 잘 존중되고 있는지 묻는 적극적인 관심은 “누가 어쨌다더라, 저쨌다더라.” 평가하고 비난하는 소모적인 관심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 거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은 긴 시간이 걸리고, 한두 명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며, 재원이 필요한 경우

다수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높다. 오래 걸리고 어려운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그 지난한 과정을 버틸 수 있는 몸과 마음의 힘이 있어야 한다. 다들 제 것 챙기기도 바쁜 사회에서는 당연히 쉽지 않다. 타인의 고민과 어려움까지 떠맡기에 나는 너무 힘들다. 나의 피로는 너의 불편과 아픔을 외면하는 변명이 된다. 한국 사람들이 세계와 견주어 많이 일하고 많이 공부한다는 사실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다들 아는 식상한 정보가 되었다. 이런 과열·과로 사회에 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여러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거기에 “우리 사회가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어떤 곳이길 바라는지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여유를 위하여”를 추가하고 싶다. ❄

왜 탄탄대로에는
다양성이
없을까?

탄탄대로를 깨트려줄
우리안의 다양성에 대하여

양희연

삼성 SDS CX컨설턴트

“양희연씨, 내가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하나 할 게. 똥인지 된장인지 짝어 먹어 봐야 알겠어?”

한 기업의 채용면접에서 면접관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당시 저는 산업 디자인과 졸업전시를 막 마친 취업 준비생이었지만, 해당 기업에서 제시한 직무별 인재상 중 사업개발직무가 저와 가장 잘 맞는다 판단했기에 기어코 전공 외 직무에 원서를 냈습니다. 채용 공고문대로라면 저는 이미 마지막 면접의 합격발표를 들은 후였지만, 한 번의 추가 면접 연락을 받았고 그렇게 들어간 면접장에서 저는 자칭 인생선배의 조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면접장에서 처음 제 이력서를 본 순간부터, 인생 조언을 마치고 걸어나가는 그(의 뒤통수)를 향해 외친 “제발 저의 얘기를 더 들어 주세요.”라는 저의 절규를 듣는 순간까지 그는 디자인을 전공한 저의 사업개발 직무능력에 대한 의심을 거둘 의사가 추호도 없어 보였습니다. 조언을 가장한 조소에 “면접관님은 저를 보고 계신 것이 맞나요? 다른 사람을 비추어 저를 넘겨짚고 계신 것 같은 걸요.” 라고 당

돌히 반문하기엔, 저는 취준생 신분으로 도마 위에 올라온 활어요, 그는 셰프 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른 기업의 사업개발직무에 새로이 원서를 냈습니다. 타인의 한 마디로 자기의심을 하기엔 낯익은 경험이었고, 무너지기엔 간절했습니다. 참으로 일관성 있게 다양성의 삶을 살아온 탓입니다.

■ 나에게 다양성은 지극히 일상적인 가치였다.

다양성 존중은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양성 담론에서 언급되는 이슈는 젠더, 인종, 장애, 국적 등 한 개인으로서는 나와 직결된 일이라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는 거대한 집단을 다양성 보호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와 같은 설명에서 대개 '나'는 존중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존중을 해주는 주체에 위치하게 됩니다. 마치 다양성 존중이란 소외 집단을 포용할 줄 아는 지성인이 되기 위해 추가적으로 갖추면 좋은 덕목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말을 소위 심플하게 생각해 보기를, 저의 이야기를 통해 전달해보고자 합니다. 학업, 직업, 연애, 결혼, 육아 등 지극히 개인적인 우리의 일상 안에서 우리는 모두 다양성의 존중이 필요한 개별의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인종과 젠더의 차별이 적은 집단을 주로 거쳐왔으나 저의 일상은 늘 단색의 집단과 대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이야기의 키워드는 #초행길 #컬러풀 #용감한계란 입니다.

미술 하는 애

학창시절 새 학기 장래희망 조사 시즌이 되면, 과목별 점수 양상에 따라 치과 의사를 눌러 적었습니다. 일관성에 도전하는 팔자가 시작된 것은 소위 '미술 하는 애'가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서울 디자인 올림픽을 보고 상상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디자인의 매력에 무섭게 빠져들었습니다. 미술 전공을 시작하기 전, 사람들은 저의 교과 성적이 미술하기엔 아깝다며 말렸습니다. 하지만 미술하는 애가 된 후엔 저는 공부와는 담 쌓은 학생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미술대학입시에서는 수학 점수가 필요치 않았고, 수학 선생님은 “미술하는 애들은 교실에서 다 나가”라며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그저 수학을 배우는 것이 좋고, 수학 문제를 풀 때면 무어라 정의하기 어려운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던 18살의 저는 기어코 수능 시험까지 수학 공부를 고집했습니다. 남들 보기엔 그저 독하고 비효율적인 입시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합격증을 받기 직전까지도 수학을 공부할 시간에 그림을 한 장 더 그릴걸 하는 자기의심과 불안감을 마음 한 켠에 지고 있었습니

다. 이러한 반항기 어린 고집이, 11년 후 의외로 요긴하게 쓰일 날이 온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기 때문이지요.

■ 순백의 호기심과 검푸르죽죽한 의심

누구에게나 20살 시절에는 몇 글자로 심장을 요동치게 하는 그런 각자의 ‘청춘어’가 있습니다. 제게는 ‘야망’, ‘열정’, ‘선구자’ 등이 그것이었습니니다.

“지금 새벽 같은 대학 캠퍼스의 젊음들은 방황해도 좋다는 겁니다. 괴테도 말했어요. 노력할수록 방황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메이비’가 있는 곳에 젊음이 있지요.”

“목표를 세웠다고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방황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심으로 무엇을 찾는 사람에게는 세렌디피티(Serendipity), 그 우연의 힘이 행운을 줄 것이다.”

이러렁 선생님의 [젊음의 탄생]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청춘의 교과서와 같았던 그 책은 마치 제게 ‘너의 방황을 허허노라.’ 라며 자유의 직위를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입학과 동시에 ‘학교를 졸업할 때 나는 이 세상이

정당한 적 없는 직업을 갖겠다.' 라는 한 곳 차이로 흑역사가 될 수 있는 야망을 품게 되었고 그 꿈을 향한 첫 실행 계획으로 모든 단과대의 강의를 듣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낯선 곳에서, 사람이 좋은 곳에선 동아리를, 공부가 좋은 곳에선 새로운 전공을, 직업이 궁금한 곳에선 일을 도전했습니다. 경험 하지 못한 곳에 대한 호기심, 그 곳에서 또 다른 적성을 발견할 제 모습에 대한 상상이 이끈 자연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산업디자인 전공을 시작으로, 사회적 기업 창업동아리, 행정-경제-법 연계전공, 금융투자회사 인턴, 영국 패션회사 인턴, 로스쿨 입시생, 현대미술관 큐레이터, 그리고 CX컨설팅까지 핀볼 같은 발자취를 그려나가는 중입니다.

그러나 각 전공의 답장을 넘는 것은 저의 자유였을지언정, 이방인이 치르는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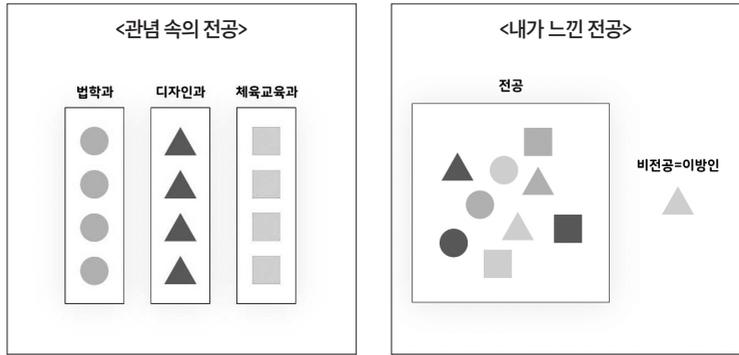
“너 경제신문은 본 적 있니?”

“나중에 법전 디자인 하려고?”

“PPT예쁘게 만드는 것, 네 전공분야잖아.”

“똥인지 된장인지, 짝어 먹어 봐야 알겠어?”

교수님, 학우, 직장상사, 동료들이 가진 ‘미술하는 애’ 라는 편견에서 발현



된 참으로 다채로운 말들 이었습니다.

60년 평생을 한 분야에서 학문과, 그리고 업과 상호작용을 한 사람들이라 면 서로가 서로를 닮은 단형 단색의 집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4년제 대학인 이곳에서조차 사람들은 말끔한 단색을 기대하고 또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한 지 2년 남짓 된 각양 각색의 학생들의 Grouping 일 뿐인 전공의 세계는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전공과 비 전공으로 나뉘는 이분법의 세계였지요. '비전공생인 네가 너의 전공인 디자인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맡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는 효율성의 논리 하에서 저에게 주어지는 일은 시종일관 이미 내용이 채워진 PPT 자료를 예쁘게 만들거나, 포스터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덕에 서적을 읽고 분석하는 등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기회나, 도전적인 업무로 발전의 구름판을 딛을 기회, 혹은 프레젠테이션과 같이 저를 표현하는 기회는 자연스럽게 저를 비켜갔습니다. 낯선 분야를 탐구할 기회조차 빼앗기는 것이 T자형 인재, 융복합 인재를 역설하는 학문의 전당과 기업에서 겪은 모순이었습니다.

以卵投石

이란투석. 약한 것으로 강한 것에 덤빈다 하여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말하는 부정적 의미의 사자성어입니다. 하지만 20대 양희연에겐 묘한 해방감을 주는 주문이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입시를 성공하기 위해 계란이 될 기회가 없었고, 사회인이 된 후에는 밥줄이 걸려있기에 그 바위가 더 우람할 테니 대학생이라는 짧은 인생의 구간동안에만이라도 나는 무한히 계란이 되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저 겪어본 적 없는 경험에 호기심이 많았던 20대 청년이었을 뿐인데, 타인의 ‘말’들에 이를 갈며 주문을 외우다 보니 어느새 이란투석은 제 좌우명이자 신조가 되어있었습니다. 다수가 공통으로 가진 편견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타인이 저에게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대 하지 않는 것까지 먼저 제시하여 ‘나의 다름이 가치 있음’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은 차별을 특별로 만들기 위한 고독한 전쟁이었습니다.

어떻게 편견을 이겨낼 수 있었나요?

저의 이력을 특이가 아닌 특별로 해석해 주시는 감사한 분들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첫 번째 질문은 대개 “어떻게 편견을 이겨낼 수 있었죠?” 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장소가 면접장이라면, 저는 제가 시도한 갖은 고군분투를 노하우로 둔갑시켜 늘어놓을 것입니다. 편견을 반전시켜 결국엔 더 큰 성취를 얻어낸 아름답고도 극적인 스토리일 테지요. 흔한 영웅 서사를 가진 드라마나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처럼요. 갖은 편견 속에서 굴하지 않고 지켜낸 꿈을 향한 강한 신념! 이를 반드시 알아보는 믿음직한 조력자! 각고의 노력 끝에 맞이한 터닝 포인트! 결과적으로 눈부신 주인공의 성공으로 마무리되는 완벽한 기승전결은 대부분의 질문자들이 제 입에서 나오길 기대하는 답일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제 자신을 감싸기에 가장 아늑한 뽕뽕이입니다. 하지만 포장하기 전에 면밀히 들여다본 저의 일상은 두 말 할 것 없는 리얼리즘, ‘편견은 극복할 수 없는 것’이라는 현실이었습니다.

만일 편견 앞에 승패가 있다면 저는 아마 패배주의자가 되었을 것 입니다.

물론 저에게도 상대방의 편견을 깨고 그에게 인정받고자 애쓰던 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제에도 없는 레포트, 시키지도 않은 전략서, 틈만 나면 손 들고 얻어낸 PT자리 등 기력이 닿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꺼냈음에도 “예체능은 논리력이 부족할 거야” 라는 의심을 치워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칼을 겨누고 이겨야 할 대상으로 편견을 바라보면, 결국 칼을 가느라 마음의 힘이 부치게 되는 건 저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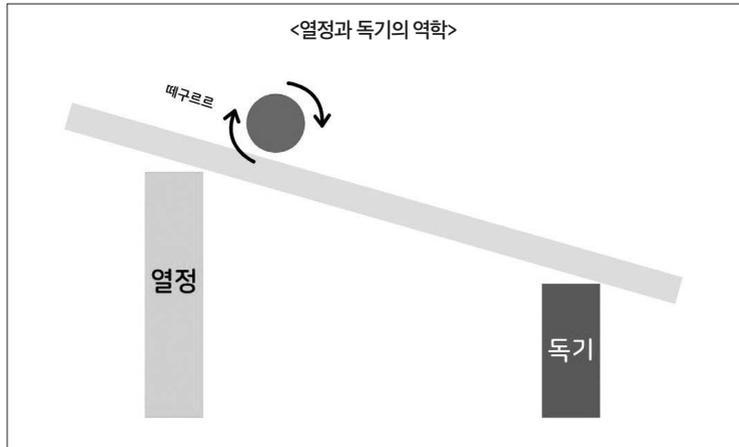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나눠보자면, 남이 해야 하는 일은 곧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며 편견은 남의 일입니다. 동시에 편견은 자신만의 멀고도 험한 인생길을 걸어오며 겪은 경험적 확신에 근거한 귀납적 추론입니다. 그들에게 고된 인생이 남겨준 값진 교훈일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생판 남인 제가 바꿀 수는 없으며 사고의 전환은 그 자신의 몫입니다. 치열하게 보낸 일상일수록 우리에게 깊은 관화로 새겨지고, 시간이 흐른 후 그 기억을 찍어내 보면 그때마다 다른 그림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전하곤 합니다. 타인의 편견 앞에서 치열하게 채워온 일상이 현재의 세계 주는 의미는 바로 ‘편견은 이겨야 하는 것이 아니다. 심리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대상이다.’ 라는 것 입니다. 아름다운 공생을 하며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 내 존재가 곧 반증인 명제를 참이라 믿는 그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 이 또한 어찌 보면 다양성의 존중 일수 있겠습니까.

이란투석(以卵投石)을 반복한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어떻게 편견을 이겨냈는가에 대한 질문 이후, 대체로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은 “이란투석을 반복한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입니다. 저는 “너는 뭐가 될지 참 궁금하다.” 라는 조롱, 호기심 그리고 애잔함이 뒤섞인 이 말을 참 많이 들곤 했습니다. 바위에 던져지는 계란이 되겠다며 끈질기게 달리는 모습이 짠하면서도 신기하기에 툭 하고 내뱉어진 말이 아닐까 저는 감히 예상해봅니다. 그때는 그 심오한 감정을 읽어내지 못하고 막연히 칭찬일 것이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켜보면, 그 이면의 질문은 ‘네 원동력은 무엇이니?’이었을 것 같습니다. ‘애는 강렬히 열망하는 목표점이 무엇이길래 흔하지 않은 길을 선택할까?’라는 궁금증이 아니었을까요. 이제서야 그 답변을 위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앞선 편견에 관한 질문과 유사한 맥락으로, 저의 꿈과 그 꿈을 꾸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아름다운 답은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바다 위에 두둥실 떠있는 부표처럼 목표점에 단단히 못을 박았다 생각해도 금세

움직여 있는 것이 꿈이었기에, 이것은 제 하루하루의 원동력이 될 수 없었습니다. 끈질김의 에너지원은 바로 제 성질머리였습니다. 당연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열정이 세상의 잣대를 만나 제 마음에 독기를 심었고, 독기는 꽤 유용한 열정이 되었습니다. ‘잘 해보고 싶다.’ 라는 열정과 ‘잘 해 보이고 말 것이다.’ 라는 독기를 오고 가는 무한 루프가 결과적으로 꾸준한 이란투석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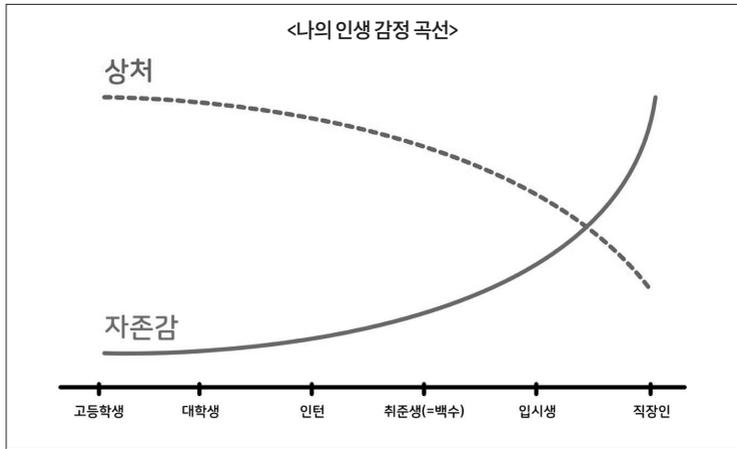


■

도전하는 대학생활, 추천하나요? 네. 20대로 돌아가고 싶나요? 아니요.

호기심 앞에 지체하지 않았던 스스로의 외연을 넓히는 대학생활을 저는 현재의 대학생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나 자신의 다양성, 그리고 타인의 다양성을 학습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방향성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저에게 20대를 다시 한 번 살아보겠냐 묻는다면, 저는 찰나의 망설임도 없이 절대 싫다고 답할 것입니다.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의 감정선을 상처와 자존감이라는 두 축으로 그려본 그래프입니다. 현재 직장인 양희연의 자존감은 지금까지의 인생 시기 중 가장 높은 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항상 스스로에게 다른 색을 입힌 경험들 덕에, 현재는 주변과 색이 현저히 다른 선택지를 택한다 하더라도 제 선택에 대한 자기의심이 매우 낮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만일 제가 어느 날 ‘셰프가 되어야겠어.’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 선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리스크들을 충분히 감당할 준비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다면 저는 지체 없이 직업을 바꿀 것 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제 나이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인생 고민인 결혼, 출산, 육아의 문제에서도 결혼적령기, 출산적령기, 적절한 자녀의 수, 보통의 가족구성과 같은 타인이 제시하는 평균치로부터 어느새 제 자신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 저에게 자연스럽게도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커리어만을 향했던 도전의 경험들이 이제는 저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쳐, 자기확신의 에너지가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이유는 저의 상처 곡선에 있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의 독기에 항상 짓눌려 있었습니다. 열정으로 전환된 일부의 독기는 쓸모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남아있는 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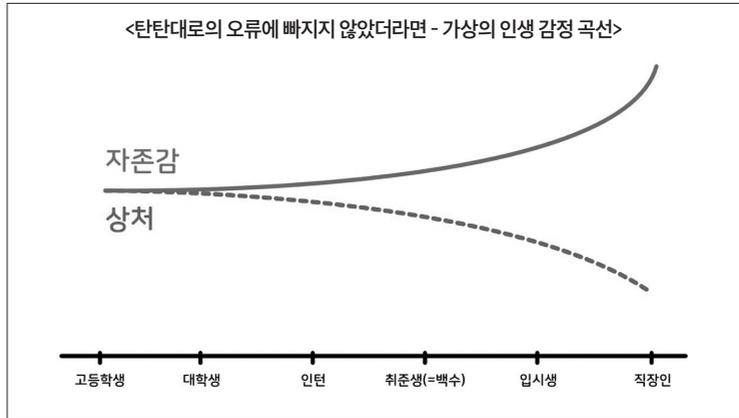
기는 키 180cm에 50kg이 안 되는 마른 몸이 증명하듯 제 심신을 갉아먹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가시 돋친 편견의 말들도 굳이 제 손으로 주워 마음에 들이곤 했습니다. 타인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고, 대중이 반박 못할 만한 성과와 그에 따른 인정을 통해 저의 도전이 의미 있음을 확인 받으려 했습니다. 저는 바로 탄탄대로의 오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탄탄대로

장래가 어려움 없이 순탄함을 이르는 말, 탄탄대로는 우리가 어려서부터 학습 받아온 인생의 정답과도 같은 길입니다. 어느 분야에나 탄탄대로는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문과생의 탄탄대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대치동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내신 관리로 명문 외국어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이후 소위 스카이라 불리는 대학에 입학합니다. 기왕이면 상경 계열이 좋습니다. 휴학 없이 우수한 학점 관리로 최대한 어린 나이에 졸업을 하고 자교 로스쿨에 입학합니다. 그렇게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전문직을 갖습니다. 수입이 생기고, 또 다른 전문직 배우자를 만나 자가, 자차의 첫 재산목표를 실현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자신과 같은 산업역군으로 키우기 위해 다시 대치동으로 돌아옵니다. 이 탄탄대로의 첫 인터체인지는 이미 14세부터 시작되었죠. 첫 번째와 두 번째 인터체인지를 놓친 대학생이라면 마음이 더욱 급해집니다. 본인은 아직 자신의 흥미도 적성도 능력도 잘 알지 못하지만 공식과도 같은 길을 따라 성공을 보장받고 싶기에 탄탄대로 입성이 간절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인터체인지까지 3년이 채 남지 않았으니까요.

저 또한 자기 주관에 따른 선택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결국엔 성공가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영국까지 가서 패션회사 인턴을 하면 유럽 패션업계에 서 직장을 찾아야지만 나의 다채로운 도전이 남다른 수확을 얻는 것이라 여겼고, 법학전공을 시작했다면 보란 듯이 변호사가 되어야 편견을 극복한 성공가가 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방향 속에서 얻는 세렌디피티를 탄탄대로 탐승권과 막연히 일치시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은 결국 새롭게 도전한 분야에서 성공가도에 발을 들이지 못하는 것은 패배라며 제 자신을 겨냥하는 화살이 되었습니다. 욕심 많은 성격 덕에 버텨오긴 했으나, 저의 상처 곡선이 고점에서 시작하여 완만한 기울기로 그려지는 것도 결국 이러한 탄탄대로의 오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점은 짧은 기간 동안 남들보다 다양한 분야를 핑퐁처럼 오고 갔다는 점입니다. 각양각색의 분야에 흠뻑 젖어있는 인생 선배들이 살아온 이야기만 들어도 탄탄대로는 인생을 멀리서 보았을 때에만 인위적으로 그릴 수 있는 관념의 길일 뿐, 가까이에서 본 인생은 저마다의 굴곡과 경사를 가진 오솔길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도 조금씩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제가 인생은 영원한 초행길일 뿐 탄탄대로는 없다라는 사실을 조금만 더 빨리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의 상처 곡선은 조금 낮은 지점에서 우 하향으로, 자존감 곡선은 더 높은 지점에서 우 상향으로 그려지지 않았을까요? 이 글을 읽는 독자 분들은 이와 같이 불필요한 마음의 상처를 덜어낸 곡선을 그려나가길 기대해봅니다.

■ 우리는 무심코 한 선택으로 무수히 많은 선택지를 잃고 있다

돌아보면 탄탄대로의 논리로 인해 우리는 무수히 많은 선택을 강요 받았습니다. 일반고/특목고/자사고, 이과/문과/예체능, 각종 탐구과목 선택, 인문학/공학/의학/법학, 기술직/행정직/전문직, 미혼/기혼/비혼, 디нк/한부모 가정 등등 매번 필수적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핵심은 각각의 선택이 곧 수많은 기회와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최고의 화두인 데이터 분석은 마케터는 물론이며 디자이너에게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입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은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수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었던 예체능 전공생은 자신의 수학적 역량과 무관하게 ‘난 숫자는 잘 몰라.’ 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고 그 결과 진입에 있어 심리적 장벽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학생과 고등학생은 단 한두살의 차이일 뿐이지만 문과로 시작한 학생은 전세계 학문의 50% 이상을 감히 꿈도 꾸지 못하게 됩니다. 과학, 수학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저는 선택의 외압이 적은 대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이

라도 자신에게 씌워진 껍데기를 거침없이 깨보기를, 남들은 상상해보지도 못한 선택지를 스스로 만들어내 보기를 추천합니다.



나는 여전히 나의 색을 정의하지 않는다.

저의 현재가, 자랑하고 싶은 성공의 정점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방향을 하다 찾은 세렌디피티, 우연한 행운이 바로 지금이라 확신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도전하는것이 정답이라고 선동할 수도 없지요. 하지만 먹이를 찾아 빙빙 도는 개미의 동선처럼 남들보다 조금 늦지만 빙빙 돌았던 지난 시간들이 다양한 색으로 스며들어 현재의 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은 명징한 사실입니다. CX(Customer eXperience)컨설턴트로 일하며 저는 금융, 공공, 물류 그리고 커머스까지 다양한 분야의 고객사를 만나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CX기획 작업을 할 때엔 비주얼 디자이너, 퍼블리셔, 개발자, 사업기획자, 영업 등 수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협업(이라 적고 밀당이라 읽는)을 해야 합니다. 나와는 전혀 다른 업종 혹은 대척점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과 원활히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업무 퍼포먼스에 있어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놀랍게도 다른 업종 및 이해관계의 사람의 말은, 한국어이지만 해석할 수 없는 외계어처럼 들리는 경우

가 많습니다. 각자가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각자의 상식을 만들고, 상식이
 라 생각했기에 당연히 여긴 것들이 어긋날 때마다 불신의 벽돌이 쌓이기 때문
 입니다. 한 예로 똑같은 앱의 사용자를 정의한다 해도 심미적 관점을 가진 비
 주얼 디자이너에게 사용자는 작은 버튼도 분별해내는 시력 좋은 젊은이라면,
 기능적 관점을 가진 개발자에게 사용자는 세상 모든 예외 케이스에 빈번히
 도달하고 마는 디지털 문맹입니다. 이 두 사람이 ‘사용자라면 이러할 것이다.’
 를 근거로 삼은 논리를 펼치기 시작하면, 각자가 정의하는 사용자를 공감하
 지 않는 한 논의는 언쟁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방황의 시간 동안 항상 생소하고 다채로운 분야의 사람
 들과 새로운 대화를 해야만 했고, 낯선 이의 낯선 관점을 캐치하는 (생존을 위
 한) 눈치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현재 직장생활에서 “저 부서 사람들
 하고는 도저히 말이 안 통해.” 라는 식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덜 받고 업
 무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방황 속에서 만난 세렌디피
 티가, 스스로는 깨닫지 못했는지언정 저의 구석구석에 흔적 기관처럼 남아있
 을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제 자신에게 다채로운 채
 색을 입혀 단색이 아닌 유별난 색을 만들고 있으며, 이는 업의 현장에서 특별
 한 매력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CX라는 창의적인 일을 하고 있
 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업에서도 자신과 다른 분야와 담을 쌓고는

일을 순탄히 진행할 수 없습니다.

“대학의 좁은 문이 하늘의 무지개로 열리는 순간입니다. 빨-주-노-초-파-남-보의 다양한 경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달려야 하는 좁은 골목에서는 오직 선두에 선 자만이 우승자가 됩니다. 하지만 하늘처럼 열린 공간에서는 모두가 각자 원하는 방향으로 날 수 있습니다. 360명이 360도의 다른 방향으로 달리면 360명 모두가 일등이 될 수 있지요. 그것이야말로 ‘넘버 원’이 아니라 ‘은리 원’의 독창성을 입증하는 경주입니다.”

[젊음의 탄생]에 나오는 위와 같은 말처럼, 나의 색을 한 가지로 바빠 정의해야 한다는 조바심을 내려놓고 지금부터라도 내 자신에게 컬러해방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요?

다양성의 반대어는 평균

다양성의 대척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차별, 편견, 일관성, 효율성일 수도 있겠군요. 저는 다양성의 대척점에 평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균은 이전 경험에 따른 결과값이기에 과거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은 이와 반대로 미래를 향하고 있는 가치입니다. 나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 내일의 것에 대한 상상력이 곧 다양성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이 말을 듣고 “나는 평균으로 살기도 바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 또한 일주일 중 4일은 평균의 삶도 벅겁다 느끼고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평균과 다양성 모두 옳고 그름이 아닌 개별의 가치라는 점입니다. 평균의 삶이 다양성의 삶을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마주한 인생이 아니고, 다양성 또한 평균을 의식적으로 거부하기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때문에 서로의 가치를 틀렸다 비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타인의 다양성을 존중할 때 비로소 나 자신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미래로 도전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교육 이념은 자유, 정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왜 대학의 이념으로까지 지정된 가치인지 우리는 반문하지 않습니다. 자유, 정의, 진리 모두 어떤 가치이고, 어떻게 행해질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 개인의 삶에 주는 영향력과 중요도를 알고 있기에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자유를 애써 외치지 않으면 당연하게 보호 받지 못하던 시절도 분명 있었습니다. 다양성 또한 자유, 정의, 진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어느새 우리 일상의 다채로움을 서로가 자연스럽게 지켜주는 미래가 오길 기대하며 저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민지영

전남 영암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서 공부하고, 지금은 부산에서 살며 라디오 PD로 일하고 있다. 재미있는 동시에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싶은 사람이고, 이 세상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양희연

잘 닦인 아스팔트가 미심 짝은 청개구리. 그 탓에 탄탄대로를 외면한 채 성실히 제 길을 비틀고 튀어 오르곤 한다. 몇 차례의 전공탐색과 직업 경험을 거쳐, 현재는 CX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졸업생이다.

Diversitas List

1호

진화는 진보가 아니라 다양성의 증가입니다 _ 이정모
고정관념은 정확할수록 문제다 _ 허태균

2호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젠더 평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다 _ 김홍탁
인공지능의 윤리학: 차별적 위계가 아닌 다양성의
알고리즘을 꿈꾸며 _ 신혜린

3호

다양성, 차이 그리고 차별 _ 박경태
효율적 삶의 피안(彼岸) _ 배종훈

4호

다양하지 않음에 질문을 던지다 _ 윤석원
인구 변동과 다양성 _ 최승기

5호

과학기술은 왜 더 많은 여성을
필요로 하는가 _ 임소연
다양성이 존중되는 학습 장면 만들기 _ 이보라

6호

혁신의 산실, 실리콘밸리의 기업 사례들로 살펴보는
다양성의 6하 원칙 _ 박은연
기형, 추함, 버림받음-프랑켄슈타인의 괴물 _ 노애경

7호

종교적 다양성에 관하여: 종교적 원판은
불변법칙인가, 가변법칙인가? _ 서명원
한국 교육에서 '다양화'의 이중적 함의 _ 전대원

8호

타이포그래피와 다양성 _ 유지원
한국어에 숨은 가장 일상적인 차별 _ 신지영

9호

다양성의 물리학 _ 김병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돌봄국가 _ 김희강

10호

다양성의 가치로 풀아낸 가능성
연구생태계에서 다양성이 가지는 의미 _ 노정혜
극장은 다양성의 산물
세계 극장사에서 발견한 다양성의 가치 _ 박동우

11호

한국 스포츠, 국가주의와 가족주의를 넘어서 _ 정윤수
성소수자의 권리 TV가 재현하는 성소수자 _ 박지훈



Diversitas

권호 12호
발행일 2021년 5월 15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다양성위원회
diversity.korea.ac.kr
디자인·편집 사이시옷

※ 이 저술은 교육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지원 받아 발간되었음